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 영 숙¹⁾

1)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Abstract =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Moon, Young-Sook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480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in Daejeon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9 to 30, 2008 and analyzed using SPSS WIN 14.0 version. **Result:** The mean scores f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mothers were 2.98 and 3.35 respectively and for self-concept, 2.80. The highest reported percentage for problem behavior over the past year were going to the noraebang (Karoki) or videobang (PC Cafe) (78.6%).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with mothers was positive correlated ($r=.365$, $p<.001$). The difference in self-concept f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was $F=60.40$, $p<.001$, and with mothers, $F=51.74$, $p<.001$ and for problem behavior, f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F=3.33$, $p<.05$, and with mothers, $F=10.05$, $p<.001$. For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s the correlation was $r=.512$, $p<.001$, with mothers, $r=.453$, $p<.001$.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problem behavior ($r=-.248$, $p<.001$). **Conclusion:** This results suggest that practica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to bolster communication of adolescents with their parents.

Key words : 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concept, Problem behavior

주요어 : 청소년, 의사소통, 자아개념, 문제행동

교신저자 : 문영숙(E-mail: moon@konyang.ac.kr)

투고일: 2008년 8월 25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22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on, Young-Sook(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685, Gasowon-dong, Seo-gu, Daejeon 320-718, Korea

Tel: 82-42-600-6343 Fax: 82-42-545-5326 E-mail: moon@konyang.ac.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부모의 권위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갈등적 시기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청소년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문제행동을 하기도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단계에 있어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서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능이나 기질과 같은 선천적인 내부 특질인 유전적인 요인과 성장 발달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성격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단순한 외계가 아닌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경험하게 하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Han & Cho, 1997) 청소년의 생활의 장인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에 있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 부적응의 어려움으로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다른 발달단계의 가족보다 가족원간의 밀접한 유대감을 지속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가족원의 변화하는 관계와 욕구에 대한 적응능력이 더 요구되며, 특히 가족원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며(Cho, 2000) 부모와의 갈등과 부모불화가 주원인이 되어서 가출과 비행, 스트레스,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Jeong, 2007). 최근 문제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행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때는 대개 중학교 시기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Kim, 1995). 특히 중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는 청소년기 적응 및 문제행동 경험에서 고등학교로의 전이단계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음주나 흡연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Matterson(1974)은 부모-자녀간의 대화와 청소년의 관계를 연구하여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대화가 빈약하면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나쁘게 반영된다고 하였으며 부모와의 적절한 대화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기를 원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도록 해주고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아개념의 확립에 중요시된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할수록 청소년은 부모와 갈등을 적게 느끼며 심리적 적응을 잘하고 높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자아개념은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Rutter, 1971). 비행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의 대부분이 본질적으로 손상 받은 자아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처한 구조적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Thomas(1977)는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으로 보았다.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가족을 보면 성원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공통된 문제라고 하였다. 특히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역할조망과 자아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이유 등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가족간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Lee, Choi, & Seo, 2000).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교육에 지장을 주고 부모 자녀간 갈등을 일으키며,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다른 여러 제반 환경과 결합하여 문제행동을 촉진시킨다(Jeong & Kim, 1998).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Ko, 2000; Kim, 2003; Choi, 200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문제행동을 함께 연관 지어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관계의 질도 많이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부모와 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감소하는 요즘 부모간의 의사소통 정도, 자아개념, 문제행동을 알아보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와 자아개념, 문제행동을 확인한다.
-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대상자의 자아개념,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남녀공학 중학교의 3학년 학생 520명이었고, 이 중 미흡하게 응답한 설문지 40부를 제외한 480부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중학교 선정은 대전시 교육위원회에서 지역별로 구분해 놓은 기준인 서부지구의 2개구 지역에서 각각 1개교씩 2개교를 무작위 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부모 의사소통 상·중·하 그룹간 비교를 고려해서 각 그룹의 표본수가 $\alpha=.05$ 에서 power $1-\beta=.90$, 효과의 크기가 .50 일 때 1개 집단의 최소 표본수가 103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크기를 정하였다.

연구도구

●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부모-자녀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Galvin & Brommel, 198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PACI: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Min(1990)이 번안한 청소년 자녀용(Adolescent Form)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20문항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형 5점 척도로 개방적인 의사소통

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배점하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항은 역산하였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분석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0.3 이하인 문항(부-자녀 의사소통 2문항, 모-자녀 의사소통 3문항)은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부-자녀 의사소통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0이고, 모-자녀 의사소통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0이었다.

● 자아개념

자아개념이란 스스로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등을 포함한다(Choi, 1997).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Choi(1997)가 Fitts(1965)의 Self-concept scale(총 100문항)에 기초하여, 총 60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덕적 자아 15문항, 성격적 자아 14문항, 가정적 자아 15문항, 사회적 자아 16개 문항이 포함된다. 4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배점하였고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4개의 하위요인 문항분석결과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0.3 이하인 문항(도덕적 자아 4문항, 성격적 자아 2문항, 가정적 자아 2문항, 사회적 자아 4문항)은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자아개념 척도 신뢰도 Cronbach α 는 도덕적 자아 .79, 성격적 자아 .78, 가정적 자아 .88, 사회적 자아 .80이었으며 총 자아개념은 .99이었다.

●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Kim & Kim, 1995).

문제행동 정도에 관한 척도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Jeong과 Kim(1998)의 문제행동 척도를 기본으로 Nam(1999)이 문제행동 유형을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청소년기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유의선정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행동 항목별로 '경험이 없다'에 0점을 부여하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평균 경험 횟수를 기록하게 하고, 문제행동의 경증과 경험빈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문제행동을 가벼운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행동은 1개월에 경험한 경험횟수에 따라 일시적 정도, 중간 정도, 상습적 정도로 나누

어 그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가벼운 문제행동: 일시적 정도 0-1점, 중간정도 1-2점, 상습적 정도 2-3점, 중정도 문제행동: 일시적 정도 2점, 중간정도 3점, 상습적 정도 4점, 심각한 문제행동: 일시적 정도 3점, 중간정도 4점, 상습적 정도 5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9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학교장의 허락을 얻고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학생들에게도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연구의 목적, 응답자의 무기명, 설문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연구결과와 활용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학생 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지 응답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등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개념, 문제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그룹 간 다중비교는 Scheffe-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개념, 문제행동과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50%로 동일하였으며, 48.5%의 청소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주거형태에서는 68.5%의 청소년의 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고, '중상'(32.7%), '중하'(12.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40대가

각각 83.1%, 77.5%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아버지는 대졸이 47.9%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이 54.2%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N=480)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240	50.0
	Female	240	50.0
Religion	Yes	231	48.5
	No	249	51.5
Residence	Own house	329	68.5
	Rent house(deposit basis)	97	20.2
	Rent house(a monthly basis)	37	7.7
	Ect	17	3.6
Relative living standard	Upper	38	7.9
	Upper middle	157	32.7
	Middle	208	43.3
	Lower middle	59	12.3
	Low	18	3.8
Father age (years)	Below 39	15	3.1
	40-49	399	83.1
	50-59	60	12.5
	Above 60	6	1.3
Mother age (years)	Below 39	88	18.4
	40-49	372	77.5
	50-59	16	3.3
	Above 60	4	0.8
Level of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33	6.9
	High school	174	36.2
	University	230	47.9
	Graduate or above	43	9.0
Level of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30	6.2
	High school	260	54.2
	University	167	34.8
	Graduate or above	23	4.8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문제행동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개념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문제행동정도는 퍼센트로 분석하였다.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2.98점이었고,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의 평균점수는 3.35점이었다.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4점 만점 중 2.80점이었고 하부영역 중 가정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이 2.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덕적 자아개념 2.76점, 성격적 자아개념 2.71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우선 문제행동의 유형별로 보면 가벼운 문제행동의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문제행동의 경험빈도

Table 2. Score for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Concept, Problem Behavior

Variable	Classification	Min	Max	M	S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ther-adolescent	1.00	4.94	2.98	.79
	Mother-adolescent	1.00	4.94	3.35	.76
Self-concept	Total	1.73	3.92	2.80	.35
	moral	1.18	4.00	2.76	.41
	personality	1.00	4.00	2.71	.43
	home	1.23	4.00	2.87	.49
	social	1.67	4.00	2.87	.40

Table 3. Problem Behavior Degree Over the Past Year (N=480, degree : %)

Problem behavior type		No experience	Temporary	Occasional	Habitual
Mild problem behavior	Going to noraebang or videobang	21.4	68.5	7.1	3.0
	Going home late without permission.	64.7	25.5	6.4	3.4
	Skipping class on purpose.	85.7	11.4	2.7	0.2
	Going to a disco.	98.3	1.7	-	-
	Going to a bar.	90.5	7.7	1.7	0.2
	Smoking	86.2	7.5	1.9	4.4
	Drinking	76.6	16.6	5.6	1.2
	Pocketing school or academy tuition fee.	87.1	10.4	2.3	0.2
	Cheating	91.7	6.0	0.8	1.5
	Bullying friends for no reason.	80.1	10.8	6.2	2.9
Moderate problem behavior	Having a part-time job at an entertainment establishment.	99.2	0.2	0.4	0.2
	Public property damage.	89.2	6.6	2.9	1.3
	Leaving school early or being absent from school without prior permission or notice	90.9	7.3	1.7	0.1
	Sleeping out without permission	92.3	4.8	1.2	1.7
	Running away from home	92.3	6.0	1.5	0.2
	Mob fight	97.1	2.7	0.2	-
	Joining a bad club	98.5	1.5	-	-
Severe problem behavior	Taking money from others or stealing	86.9	10.6	1.7	0.8
	Bond sniffing, butane-gas sniffing	99.2	0.4	0.2	0.2
	Taking a psychedelic drug	99.2	0.6	0.2	-

별로는 일시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벼운 문제행동에서는 법 규정상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노래방·비디오방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7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가벼운 문제행동은 허락없이 밤늦게 귀가 35.3%, 음주 23.4%, 이유 없이 친구 괴롭히기 19.9%, 일부러 수업 빼먹기 14.3%순이었다. 가벼운 문제행동의 상습적 정도는 흡연이 4.4%로 가장 많았다.

중정도 문제행동에서는 돈뺏기·훔치기가 1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물 파손 10.8%, 무단조퇴·무단결석이 9.1%로 나타났다. 상습적 정도는 허락없이 외박이 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행동인 본드·부탄가스 흡입, 환각제 복용은 0.8%로 아주 적게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는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분포 비율에 따라 상위 1/3, 중간1/3, 하위1/3 의 3 그룹으로 나누었다(부: 상위 3.31-5.00점, 중간 2.61-3.30점, 하위 1.00-2.60점, 모: 상위 3.71-5.00점, 중간 3.01-3.70점, 하위 1.00-3.00점).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 정도의 차이는 자아개념의 하부영역별과 총 자아개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에서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M: 2.92), 성격적 자아(M: 2.91), 가정적 자아(M: 3.18), 사회적 자아(M: 3.04), 총 자아개념(M: 3.02)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중간 정도, 낮은 정도로 나타난 대상자의 자아개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에서는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의 도덕적 자아(M: 2.91), 성

Table 4.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Concept, Problem Behavior (N=480)

Variable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High ^A	Middle ^B	Low ^C	F	High ^A	Middle ^B	Low ^C	F
	M±SD	M±SD	M±SD	post Hoc	M±SD	M±SD	M±SD	post Hoc
Self-concept								
Moral	2.92±0.40	2.72±0.39	2.65±0.38	18.70*** A> B,C†	2.91±0.39	2.75±0.35	2.62±0.43	23.28*** A> B>C†
Personality	2.91±0.38	2.68±0.40	2.54±0.43	30.71*** A> B>C†	2.87±0.46	2.69±0.35	2.57±0.42	20.86*** A> B>C†
Home	3.18±0.45	2.86±0.35	2.54±0.47	80.45*** A> B>C†	3.15±0.45	2.87±0.37	2.58±0.48	68.32*** A> B>C†
Social	3.04±0.40	2.81±0.33	2.77±0.41	20.64*** A> B,C†	3.01±0.41	2.83±0.35	2.77±0.39	15.99*** A> B,C†
Total	3.02±0.33	2.77±0.29	2.62±0.31	60.40*** A> B>C†	2.99±0.36	2.79±0.25	2.64±0.32	51.74*** A> B>C†
Problem behavior								
Mild problem behavior	1.37±2.34	2.11±3.08	2.14±2.75	3.33* A<B,C†	1.49±2.33	1.30±1.89	2.73±3.54	11.59*** A,B<C†
Moderate problem behavior	0.78±1.95	1.06±2.23	1.23±2.35	1.48	0.75±1.75	0.82±1.68	1.48±2.84	5.29** A,B<C†
Severe problem behavior	0.02±0.25	0.02±0.30	0.02±0.26	0.00	0.00±0.00	0.03±0.32	0.04±0.34	0.84
Total problem behavior	2.18±4.12	3.26±5.11	3.34±4.69	2.38	2.25±3.62	2.09±3.24	4.31±6.21	10.05*** A,B<C†

*p<.05, **p<.01, ***p<.001, † Scheffe-test

격적 자아(M: 2.87), 가정적 자아(M: 3.15), 사회적 자아(M: 3.01), 총 자아개념(M: 2.99)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중간 정도, 낮은 정도로 나타난 대상자의 자아개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는 문제행동을 가벼운 문제행동, 중정도 문제행동, 심각한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분석하였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에 따라 가벼운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중간정도(M: 2.11), 낮은 정도(M: 2.14)로 나타난 대상자보다 가벼운 문제행동이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중정도 문제행동(M: 0.78), 총 문제행동(M: 2.18)에서도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중간정도, 낮은 정도로 나타난 대상자의 문제행동보다 적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문제행동에서는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의 가벼운 문제행동(M: 1.49), 중정도 문제행동(M: 0.75), 총 문제행동(M: 2.25)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난 대상자의 가벼운 문제행동(M: 2.73), 중정도 문제행동(M: 1.48), 총 문제행동(M: 4.31)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개념,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개념,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r=.365, p<.001), 자아개념(r=.512, p<.001)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자녀 의사소통도 자아개념(r=.453,

Table 5. Correlation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Concept, Problem Behavior (N=480)

Variabl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concept	Problem behavior
	Father-adolescent	Mother-adolescen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ther-adolescent	1.00		
	Mother-adolescent	.365***	1.00	
Self-concept		.512***	.453***	1.00
Problem behavior		-.136**	-.189***	-.248***

p<.01, *p<.001

$p < .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개념과 문제행동 간($r = -.248, p < .001$)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개념, 문제행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정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 평균점수는 2.98점으로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보면 59.6점이고,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 평균점수는 3.35점으로 백분위 환산점수는 67점이었다. 이는 Jeong과 Kim(1998)의 연구(아버지-자녀 의사소통 평균 59점,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평균 66점), Cho(1992)의 연구결과(아버지-자녀 의사소통 평균 59.7점,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평균 67.7점)와 거의 비슷하였다. Oh, Park과 Choi(2008)의 연구(아버지-자녀 의사소통 평균 61.70점,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평균 64.04점), Kim(1993)의 연구결과(아버지-자녀 의사소통 평균 59.2점,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평균 70.9점)와도 약간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선행연구결과들과 및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체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본 연구의 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 것은 많은 시간적,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 대상자들의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2.80점으로 백분위 환산점수로는 70점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교적 높은 자아개념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에서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가 평균 이상인 결과와 연관지어볼 때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Shin, 2000)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에서는 문제행동의 유형별에서는 가벼운 문제행동의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문제행동의 경험빈도별로는 일시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 출입에 관한 항목에서는, 락카페나 디스크장에 출입한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1.7%, 술집이나 단란주점에 출입한 적이 있는 학생은 9.6%였다. 그리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 청소년의 출입시간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입시간 외에는 부모등의 보호자 동반자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전체의 78.6%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Nam

(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장소가 또 다른 문제행동에 접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인데,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문제행동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음주는 23.4%, 흡연은 13.8%가 경험하였다고 나타났으며 가벼운 문제행동 중 상습적 정도에서는 흡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학생들의 약물남용경험이 아주 높다는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에 비추어 볼 때 유해약물로 접어드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학생의 경험빈도 확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정도 이상의 문제행동 경험정도는 가벼운 문제행동에 비해 경험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돈을 뺏거나 훔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3.1%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는 학생은 10.8%, 무단조퇴나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은 9.1%로 중학생의 문제행동 실태를 조사한 Kim과 Kim(1995)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개념 정도, 문제행동 경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다양한 문제행동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음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의 자아개념이 중간정도, 낮은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나타난 대상자의 자아개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자녀간의 대화와 청소년의 관계를 연구한 Matterson(1974)의 연구결과에서도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학생은 부모와의 대화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Shim(199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자녀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좋은 청소년들이 높은 자아개념을 나타내었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적절한 대화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기를 원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도록 해주고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을 위한 따뜻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는 청소년의 자아수용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가 아동의 높은 자아개념과 관련된다(Park, 1987)는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비행의 유혹이나 압력에 대한 내적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년 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에 관한 연구(Chung, 2006)는 비행 청소년이 더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문제행동으로부터 격리시켜주는데 자아개념이 효과적인 변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증진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에서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의 가벼운 문제행동이, 중간정도, 낮은 정도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 나타난 대상자의 가벼운 문제행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서는,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들의 심각한 문제행동을 제외한 모든 문제행동이 중간정도, 낮은 정도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나타난 대상자의 문제행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각한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은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경험한 심각한 문제행동 발생정도가 아주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질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높아진다는 많은 연구결과들(Lee, 2000; Rho, 2002; Lee, 2005)과 일치하고 있다. 즉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어머니-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대상자의 총 문제행동 정도가 낮게 나타남은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am(199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문제행동을 더 적게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 평소에 많은 시간을 접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 기술이 시도되어지는데 비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이나 문제행동을 해결하여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청소년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모두 대상자의 자아개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정서적인 질이 청소년의 발달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지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안정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좋은 유대관계, 부모의 관심이 적절하며 부모에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이 증진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Jeong, 2001)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연구결과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가 아버지에게는 가벼운 문제행동에서만 나타나고 어머니에게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제외한 전체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전체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시에는 그 관련성의 형태가 약한 선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비례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는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간에 서로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Shim, 1992)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대상자들의 문제행동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문제행동만을 보고하고 있어 대상자의 자아개념이 전체적인 문제행동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간의 부적 상관이 나타난 점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높은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기여하고, 높은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학생의 문제행동 확인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험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고등학교 시기보다는 문제행동경험에서 과도기적 전이단계로서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3학년 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서 본 연구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전 시내 소재의 2개 중학교 남녀학생 480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8년도 5월 19일부터 5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Scheffe-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평균 2.98점 이었고, 어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은 평균 3.35점 이었다. 자아개념은 평균 2.80점 이었다. 대상자가 지난 1년간 경험한 문제행동은 가벼운 문제행동 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그중 노래방·비디오방 출입 78.6%, 허락없이 밤늦게 귀가 35.3%, 음주 23.4%로 가장 높은 경험빈도를 나타내었다. 중정도 문제행동에서는 돈뺏기·훔치기가 13.1%로 가장 많았다. 심각한 문제행동인 본드·부탄가스 흡입, 환각제 복용은 0.8%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개념, 문제행동 정도의 차이분석에서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정도가 높게 나타난 대상자의 자아개념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낮은 정도로 나타난 대상자의 자아개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아버지: $F=60.40, p<.001$, 어머니: $F=51.74, p<.001$). 문제행동에서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정도,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정도가 높게 나타난 대상자의 문제행동이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정도가 낮은 정도로 나타난 대상자의 문제행동보다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어머니: 총 문제행동: $F=10.05, p<.001$).
-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개념, 문제행동간 상관관계는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r=.365, p<.001$), 자아개념($r=.512, p<.001$)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어머니-자녀 의사소통도 자아개념($r=.453,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개념과 문제행동간($r=-.248, p<.001$)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아개념 외에도 부모와 청소년의 다른 변인이 포함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개념, 문제행동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바람직하게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화된 부모-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References

Barnes, L.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N.: Univ. of Minnesota.

Cho, E. K. (1992). *Effects of the personal space, the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 children and their parents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Unpublished docto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Cho, Y. J. (2000).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and family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Choi, Y. H.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 communication style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problema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Choi, J. G. (1997). *The self-concept, stress,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Chung, I. J. (2006).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 Associ Social Welfare Studies, 31*, 133-159.

Fitts, W. (1965). *Tennessee self-concept scale manual*. Nashville, Tenn: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2nd ed. Illinois: Scott, Foresman & Company.

Han, S. C., & Cho, A. M. (1997). *Adolescents psychol*. Seoul : Yangseowon.

Jeong, D. M.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verbal communication levels in parent-child and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Kongju.

Jeong, S. H. (2007). An analysis of pathways from SES, 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to adolescent delinquency. *Korea Associ Social Welfare Studies, 32*, 5-34.

Jeong, Y. M., & Kim, D.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of vocational girl's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roblem behavior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 36(3)*, 31-45.

Kim, I. K. (1993). The Adolescence Egocentr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Family System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J Experi Psychol, 6(2)*, 96-119.

Kim, J. H., & Kim, E. K. (1995). *A study delinquenc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oul.

Kim, J. Y. (2003). *The effect of child'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self-esteem on child's behavioral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 S. M. (2000). *Impact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n children's stress and problem behavior: In case of children of fifth and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Lee, E. H., Choi, D. H., & Seo, M. K. (2000). The effect of school stress, self 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ternal factor of parent on depression adolescent. *Korean*

- J Experi and Cogni Psychol*, 12(2), 69-84.
- Lee, H. A. (2000). *Delinqu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S. (2005). *The research of the effectiveness of youth suicide thought by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mental s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Matterson, R. (1974). Adolescent self-esteem, family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J Psychol*, 86, 35-47.
- Min, H. Y. (1990). *Circumplex model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 Haper & Row.
- Nam, H. M. (1999). *The effect of family psychologic environment, self control, peer character on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Oh, H. A., Park, Y. R., & Choi, M. H. (2008).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4(1), 35-43.
- Park, S. H. (198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Rho, J. H. (2002).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Rutter, M. (1971). Parent-child separation: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 Child Psychol and Psychiatry*, 12, 233-260.
- Shim, E. C. (1992). *Effects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elf-concept on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Shin, N. N. (2000). *The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Thomas, E. J.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